

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인성여자고등학교 교장 김 광 준

소통의 방법

전쟁, 세상의 많은 다툼, 친구들과의 멀어지는 관계는 자기주장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모두가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오해는 사라질 것이지요, 세상 또한 살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오해들 사지 않을 방법, 즉, 친구들과의 소통의 방법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통(疏通)은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친구와의 사이에 생각하고 있는 뜻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려면, 먼저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 그 뜻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청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하여 과정을 묻기도 하고, 감정을 이해해 주기도 하며 반응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우 많은 종류의 미디어와 접촉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며 의사전달을 하는 확률은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자칫 멀어져 갈 수 있으며, 오래로 인한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디어의 역작용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생각을 멈추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이해해주며 과정을 공유하고 반응하는 진정한 소통의 친구들로 성숙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 여러 학교 조직 속에 있습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易地思之하는 사랑하는 인성의 소중한 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 4절)

